

부모 되기 전에 부모 되는 법부터

신생아에서 십대까지, 자녀에 대한 출판의 포괄적인 관심

글_ 허선

가정의 핵가족화로 자식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더욱 높아진 한국의 현실처럼 미국에선 이미 80년대부터 한층 체계적인 육아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책들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보다 준비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와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에 부응하고자 많은 출판사들은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육아법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그동안 외면 받았던 자폐아동이나 최근 미국 연예인들에게 봄처럼 이루어지는 입양아동 관련서적도 활발히 출판되고 있고, 한편으로 육아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어린이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십대의 문제까지 짚어볼 수 있는 정보를 다루고 있어 독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궁금증을 가진 독자들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 온 출판사들의 노력 덕분이다.

✦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제의 육아도서

과거 육아도서면 보통 신생아부터 시작해 아이의 생육발달에 따른 시기별 육아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룬 책들을 말했으나, 지금은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도서의 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없을까 하는 염려일 것이다. 이러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관련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감각기관의 장애를 다룬 《조화되지 않은 아이들(The Out-of-Sync Child)》은 꾸준한 판매로 대략 30만 부(22쇄)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서울 삼청동 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 www.galleryjinsun.com 을 운영하고 있다.

를 찍었다. 주의력 결핍과 행동과다장애를 처음으로 다루어 화제가 되었던 에드워드 하로웰 박사의 《혼란스러움(Driven to Distraction: Recognizing and Coping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은 1994년 출간 이후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주의산만에서 해방되기(Delivered from Distraction: Getting the Most Out of Life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도 작년 1월에 출간되자마자 4쇄를 찍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어린이 비만을 다룬 책들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래에 아동 비만이 성년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과학적 통계가 속속들이 발표되면서 아동 비만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발맞춰 비만을 피할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있다. 건강 식습관을 보여주는 마리리아사 칼타의 《야만인의 요리(Barbarians at the Plate)》, 비만으로 부터 자녀를 구해내는 식습관을 다룬 리사 타르타멜라의 《엑스트라 라 라지(Extra Large: Rescuing Our Children from the Epidemic of Obesity)》, 자신의 학교에서 당분이 들어간 스낵들과 음료수를 금지시킨 교장선생님 이본느 샌덜스 버트리의 《건강한 아이, 똑똑한 아이(Healthy Kids, Smart Kids)》 그리고 미국내 히스패닉 독자와 영어 독자를 함께 겨냥한 올바른 영양소 섭취에 관한 가이드 《뚱뚱한건 건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Gordito Doesn't Mean Healthy)》 등이 그것이다.

✦ 자폐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

자폐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지난 몇 년 동안 몰라보게 커졌다. 자폐증을 다룬 소설 《야밤에 개한테 일어난 궁금한 사건(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고, 동물의 행동을 해독하기 위해 자폐증의 비밀을 이용한 비소설 《변화중인 동물들(Animals in Transition: Using the Mysteries of Autism to Decode Animal Behavior)》이 대중들에게 자폐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주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어린이 150명당 1명꼴로 자폐

증상이 있다는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귀기울여야 할 여러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들도 출간되고 있다. 《자폐증을 가진 당신의 자녀 돕기 Helping Your Chil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 Step-by-Step Workbook for Families》는 어떻게 자폐증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실제 자폐아동의 이야기를 쓴 《리얼보이 A Real Boy: A True Story of Autism, Early Intervention, and Recovery》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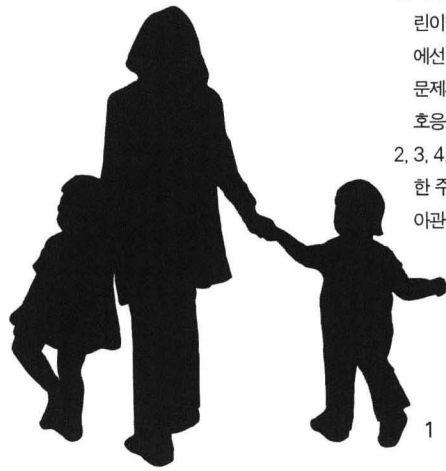
미국의 많은 가정이 입양에 대한 호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펍킨그룹, 알파출판사에서 출간된 《입양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Adoption》는 글로벌화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인터넷 보조입양과 국제입양에 대한 내용을 첨부시켜 좀 더 쉽게 입양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 십대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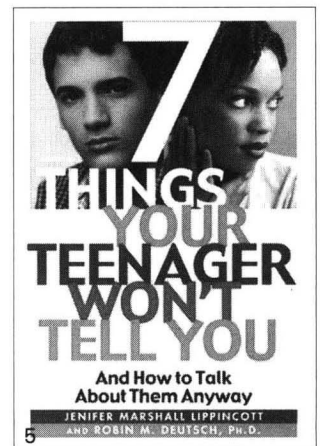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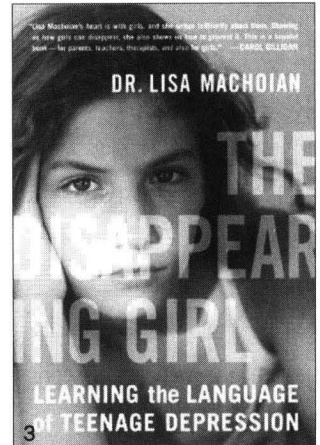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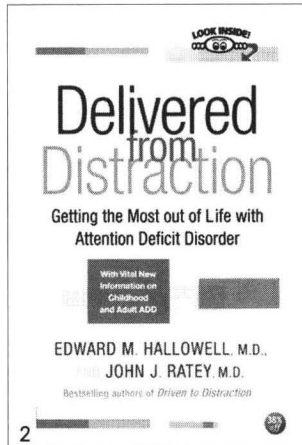
보통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십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다 컸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점차 많은 미국의 부모들은 십대아말로 어른이 되기 전에 많은 변화를 맞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요즘에는 에이즈, 비만, 마약, 섹스 등 10대를 노리는 질병과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휴대폰의 사용이나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십대를 잘 키우는 방법으로 대화를 먼저 끊고 있는데, 십대와의 대화 단절로 고민이 많은 부모를 위한 책들의 출판이 활발하다. 먼저 《십대들이 당신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을 7가지 것들 7 Things Your Teenager Won't Tell You: And How to Talk to Them Anyway》과 십대들의 시각으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코드깨기 Breaking the Code: Two Teens Reveal the Secrets to Better Parent-Child Communication》가 있다.

반면 십대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점들을 다룬 책들은 많은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여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술취한 Smashed: Story of a Drunken Girlhood》이라든가 미국사회의 십대들에게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우울증을 다룬 《사라진 소녀 The Disappearing Girl: Learning the Language of Teenage Depression》 등이 있다.

미국에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교육을 통해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인식이 높다. 또한 육아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무척이나 높아 스테디셀러들이 많은 편이다. 교육이나 일반적인 육아도서에 치우쳐 있는 한국의 육아도서시장도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독자를 찾아갈 수 있는 성숙된 모습으로 변모하기 바란다. **▶▶**



1. 육아법이라고 해서 더 이상 어린이만을 다루지 않는다. 미국에선 풀기가 쉽지 않은 십대의 문제까지 다뤄 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2, 3, 4, 5, 6. 장애,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세분화된 미국의 육아관련 도서들.



Scooter, Skates, In-Line Skates and Skateboard Safety

Scooters are quick and lightweight and some even fold up for easy carrying. But are they safe? They can be if used correctly. Let's see how much you know about scooter safety. Take this quiz, then turn the book upside-down. The answers are at the bottom of the page. Have your friends take the quiz, too! Are they as smart as you?

Brain Teasers

- When riding a scooter, what should you wear?
 - nothing
 - your pants
 - your jacket
 - all of the above
- When should you ride your scooter?
 - at night
 - only at night
 - either in daylight or at night
 - it doesn't matter
- It's okay to ride a scooter in the street.
 - True
 - False
- When a skater falls, a scooter?
 - Never can injure him.
 - Can injure him, even if he is wearing his helmet.
 - Can injure him, even if he is wearing his knee pads.
 - Can injure him, even if he is wearing his elbow pads.
- What is the best footwear for riding a scooter?
 - socks
 - no shoes
 - sturdy shoes
 - shoes with long, floppy laces

FAST FACT The most common injuries to skaters, scooterers, and skateboarders are broken bones. Always wear your safety gear.

Skateboarders wear protective gear and follow the same rules skaters and scooter riders do. They also have to learn how to fall! Most skateboarding injuries are due to falls, so it's good to know how to fall correctly. Talk to your parents about finding a skilled person to show you how to fall with a reduced risk of injury.

Top Tips for Skateboarders

- Riding in the street isn't smart.
- Don't take chances.
- Practice tricks carefully and in specially designed areas.
- Only one person per skateboard.
- Holding a skateboard can be a car, bus, truck, bicycle, or a dangerous.
- Check your board for loose, broken or cracked parts, sharp objects, slippery top surface, and wheels with cracks and cracks.
- Wear protective gear that doesn't interfere with your movement, vision or hearing.

The sturdy, slip-resistant shoes, helmets and specially designed padding to prevent injuries. Padded jackets and shorts are available, as well as padding for hips, knees, elbows, wrist guards and special skateboarding gloves. The gear shouldn't interfere with your movement, vision or hearing.

FAST FACT Skateboarders under the age of 14 who have been riding for less than a week, suffer one third of all skateboarding injuries.